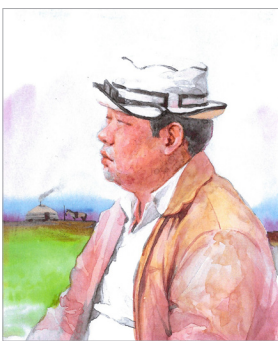


몽골 유목 문화(Mongol Nomadic Culture)의 세계화

강사 소개



강사: 윤형원 국립김해박물관장

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.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마치고, 몽골 국립역사박물관·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와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·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함께 일했다. 지난 32년간 대한민국 국립박물관(중앙박물관·경주박물관·대구박물관·전주박물관·부여박물관)과 문화재청(경주문화재연구소·해양문화재연구소)을 거쳐, <세계유산·가야>의 국립김해박물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.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(KACAS) 12·13대 회장을 역임하였고, 세계몽골학회(IAMS) 정회원이다. 2022년에 몽골대통령으로부터 최고훈장인 '북극성 대훈장(알탄 가다스)'을 서훈받았다.

주요 저서로 <신라인의 무덤>, <통일신라>, <발굴에서 전시까지>, <몽골 호드긴돌고이 흥노 무덤>, <몽골흥노무덤자료집성>, <흥노고고학개론>, <대한민국 수증문화재 발굴 40년>, <명나라 무역선 난아오 1호>, <대항해 시대의 베트남 도자기>, <백제 왕흥사>, <부여 능산리 1호-東下塚>, <개태사>, <북위(北魏)-선비(鮮卑) 탁발부의 발자취> 등 다수가 있다.

강의 요약

고고학 발굴(Archaeological Excavation)의 성과와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유목문화(Nomadic Culture)의 전시(Exhibition)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40여년간 몽골국(Mongol)과 세계 각국의 박물관에서 그 성과가 전시되고 있다. 독일·프랑스·미국·대만·일본·네덜란드·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우리나라도 유목문화 이해를 위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 <칸의 제국-몽골>(몽골)은 <스키타이 황금>(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), <알타이 문명전>(러시아 시베리아 고고학민족학연구소) 등 북방문화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. 세계 유수 박물관의 유목문화 전시사례에서 스키타이·사슴돌·흉노(匈奴)·선비(鮮卑)·유연(柔然)·돌궐(突厥)·위구르·거란(契丹)·몽골(蒙古, 元)제국·근현대 몽골국에 이르기까지 초원유목사회의 문화와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. 2024년 10월에는 <철의 왕국·가야>의 시작이었던 김해에서 철문화 발생지 '〈히타이트〉(튀르키예) 문화'를 특별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.